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향연구소는 여러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은 우리들의 몸(빙)의 되어** 방해 받고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78호 현대불교
2008년 5월 7일(음력 4월 3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A27

네 마음부터 발견하고 네 마음부터 보아라!

제주시원의 여러분, 그리고 큰스님네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명 깊고 감사합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회에서는 불교가 목탁이나 치고 머리 깎고 염불이나 하고 집이나 보고 사주나 보는 마구나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하야간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한 지구 안에, 즉 한 버스 속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한 버스 안에서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네 자리 내 자리,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불교의 심오한 뜻은,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하나도 모르면서 말들을 험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란 풀 한 포기 생명도 돌 하나의 생명도 모두가 '불(佛)'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그 생명들은 전부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끝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그대로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라 전체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불교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진리에 순응해야 하며 시대가 발전되는 대로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처님께서 그 시절에 맞게 방편으로 썼던 용어를 지금 시대의 용어로써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 바깥으로 꼬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네 마음부터 발견하고 네 마음부터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을 것이고 부처님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부처도 있고 종교도 있고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예로 들자면, 그 나무의 잎새, 가지가 무엇으로 인해서 푸르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짝이라면 여러분의 영원한 뿌리, 근본 불성은 바로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짝은 제 뿌리를 믿어 야만이 제 뿌리에서 쉼본 지분 수분, 이 모두를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태양열과 공기력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서로 주고받고 상응하면서 푸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대 성인들과 모든 부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처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부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무가 제 뿌리를 믿어서 제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제 나무에서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바로 만 가지 맛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제 나무에서 익은 열매는 그렇게 만 가지 맛이 남으로써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맛을 보고 그 뜻을 집착을 하고, 그 맛을 보고 부처님의 묘한 뜻을 알고, 그 뜻을 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자기 근본 뿌리를 믿지 않고 아무리 바깥으로 찾아 봤자입니다.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구멍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일상 생활하는 데서 항상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도 바로 오신통을 그대로 역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속명통. 이 다섯 가지인데 그것도 이름 해서 다섯 가지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가고 오면서 행하고, 남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속으로 어디서 내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섯 가지를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것은 어떻게 따진다면 한 덩어리의 컴퓨터밖에는 되지 않느니라. 그 행하는 도리의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바로 누진의 대회를 통해서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신통 자체를 굴린다고 했습니다. 오신통 안에서는 오신통을 굴릴 수가 없으니까 오신통을 벗어나야 되죠. 통 밖으로 나가야 그 통을 굴리듯이 말합니다. 아리송합니까? 하하하...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시는 그 자체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만나는 것, 또 먹는 것까지도 고정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 해서 바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데 가도 있는 줄 알지 마시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도가 있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생활이 있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바로 잘 굴리고 못 굴리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각자를 보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라도 틀린 게 있나. 여러분 몸통이 속에 자생종생들이 꼭 있습니다. 자생종생들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꼭 차 있습니다. 꼭 차 있는 이 자생종생을 어떻게 해아만이 제도를 하고 화하게 해서 보살로서 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생종

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바로 본인 자체가 견성을 하며 성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생종생들이 만약에 작용을 멈추고 어떠한 병이 들거나 파위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육체는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몸통이를 축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됩니다. 이 몸통이 속 모든 자생종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그 인연에 따라서 주어진 악업 선업이 바로 여러분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가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가 없고, 현실은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물 한 컵을 먹었다 합시다. 물 한 컵을 먹었을 때 혼자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먹었습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공식(供食)을 한 겁니다. 그랬으니 '내가 먹었다' 할 수가 없죠. 내가 일할 때도 같이 했으니 '내가 일했다'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봤다 하더라도 '내가 봤다'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번 게 없고요. 모두가 한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높다 낮다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높다 낮다 할 수가 없는가. 모두가 공생 공음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벌었다'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망했다' 또는 누구를 봤다 하더라도 '내가 봤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살고 있다' 그저 매사 게나, 나, 나, 나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오신통이 컴퓨터와 같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 인간에게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누가 입력을 해 줘서 입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입력이 될 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는 대로 현실에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력이 된 대로 말입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죠. 그것을 번뇌 망상이라고 하고 애고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성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세균성이라고 하고 인과성이라고 하고, 모두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지금 물질세계에서 물질과학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과학으로 물질세계에만 등장을 한다면 절대 그것은 올바른 과학이 아니라 올바른 천체물리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의학이 아니고 올바른 철학이 아니고 또 올바른 천문학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에 의하면 (물컵을 만지시며) 이것이 부피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하는 것을 자주 발견해 내는 것이 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발견했으면 그와 더불어 매가 고프면 먹을 줄 알고 목이 마르면 마실 줄 알고, 잡자고 싶으면

잡자고 싶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날 줄 아는 것이 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짜 자유인이 돼야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어떤 개별적인 하나의 부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없을 때에 그걸 이름 해서 부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생종생들을 다 제도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 제도가 된 거고, 제도를 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즉 지금 현재의 말로는 원자에서 분자로서 입자가 수만이 나가서 응신이 돼

28면으로 계속

“원인을 알면 막힌 일이 풀립니다.”

* 대자대비관세음보살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기도하시면서 몸소 보고, 듣고, 체험 하십시오

- * 소송은 우리들의 몸(빙)의 되어 방해 받고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맑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 (영가 천도제) 전문 기도 도량

<관세음 보살님 친견 스님이 천도제 기도 집전>

- 가출 청소년 귀가지도
- 이사 후 사건, 사고 잦으신 분(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 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병원 치료 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애가 있는 분
- 빙의되어 정신이 흐리거나 몸이 아픈 종교인 상담 해 드립니다.

* 각종 시험에 계속 낙방 하시는 분 →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득점 대입합격

- ◆ 본 사찰에서는 영가 천도 기도중에 향연기와 풍경(바람)소리로 영가 천도의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부처님의 법은 대자연이며 그 법을 만난 인연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 1998년 7월 24일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미술 행화 사사수행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김병룡)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도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령용
주문제작 (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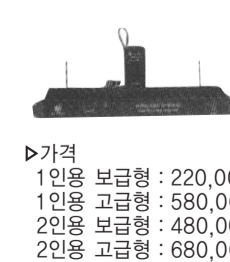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